



책갈피 샀는데
빵이 ‘덤’
편의점 굿즈 열풍
L2



Life

한진
네팔 이재민에
희망 전해
L4



가전 넘어 사람·자연으로... ‘더 나은 삶’ 여는 따뜻한 기술



LG전자

가전의 역할은 집 안의 편리함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사람의 손길이 닿는 제품을 만들며 쌓은 기술은 가전 밖에서도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다. 청년의 자립을 돕고 가전의 사용 문턱을 낮추는 한편 훼손된 자연을 되살리는 데까지 활용되고 있다. LG전자는 ‘모두의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All)’이라는 지향점 아래 기술과 경험을 사람과 환경으로 확장하고 있다.

LG전자는 에티오피아 청년들에게 전기·전자 기술을 가르쳐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30년 가까이 축적한 소재 기술을 바다숲 복원에 활용하는 동시에 장애인과 시니어의 불편을 제품에 반영하며 가전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기술의 쓰임을 사람과 환경으로 넓히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은 LG전자가 지속가능경영 비전으로 내세운 ‘모두의 더 나은 삶’과 맞닿아 있다. 특히 올해는 장기간 이어온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자립으로 결실을 맺는 한편 가전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환경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등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 기술 가르쳐 자립 지원...에티오피아 취·창업률 100%

LG전자의 사회공헌은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현지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운영하는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다. LG전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에티오피아 정부 등과 협력해 지난 2014년 학교를 설립하고 전기전자와 정보기술(IT) 분야 직업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제10회 졸업생 68명이 학교를 떠나 사회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들을 포함한 누적 졸업생은 679명이다. 졸업생의 취·창업률은 100%로 졸업생 모두가 IT 기업 등에 취업하거나 학교에서 익힌 기술을 토대로 창업했다.

지원은 졸업과 함께 끝나지 않는다. 우수 졸업생에게는 LG전자 중·장기 서비스 인의 채용 전환형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교내 창업 지원센터에서 법률과 마케팅, 사업 관리 등에 필요한 실무교육과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이 교육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점심 식사와 통학버스도 지원한다.



1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가운데)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한 ‘LG·한국국제협력단 희망직업훈련학교’에서 열린 제10회 졸업식에서 참전용사 손주인 쌍둥이 남매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LG전자가 지난달 20일 경남 창원 LG스마트파크에서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한국수산물자원공단과 ‘바다숲 조성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한국수산물자원공단 김종덕 이사장, 해양수산부 최현호 수산정책실장, LG전자 최성봉 빌트인·쿠싱솔루션 사업부장, 경상남도 박일웅 행정부지사.

3 LG전자가 접근성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고객 참여형 커뮤니티 ‘볼드 무브’ 시즌 2를 운영한다. /LG전자, 뉴시스

다. 매년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학생을 선발한 뒤 기술교육부터 취업과 창업까지 연결해 일회성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성과는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다.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는 올해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개발협력(ODA)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 가전 연구 소재, 30년 만 바다 살리는 기술로

LG전자가 축적한 기술은 공장과 제품을 넘어 자연 생태계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8월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한국수산물자원공단과 ‘바다숲 조성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경남 고성군 해역의 해양생태계 복원에 나섰다. 오는 2029년까지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해역 약 1.5㎢에 총 13억원을 투입해



에티오피아 학교 설립, 직업교육 현지 청년에 기술전수... 자립 도와 우수 졸업생엔 채용형 인턴 기회도

축적된 기술 활용 자연 생태계 복원 신소재로 해조류 키우고, 수질개선 바다숲 조성 해양생태계 복원 앞장

국내외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재활용률 97.3%, 폐전자제품 회수 S&P 글로벌 CSA 3년 연속 ‘톱 1%’ 고객 참여 ‘모두를 위한 가전’ 개발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해조류가 사라지면서 암반이 하얗게 변하는 ‘갯녹음’ 현상으로 훼손된 해양생태계를 되살리는데 초점을 맞춘다. 갯녹음 암반을 복원하고 바닷말 군락을 조성하는 한편 해조류를 먹는 성게 등 조식동물을 제거하고 해양 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바다숲 복원에는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기능성 신소재 ‘LG 마린 밸런스(LG Marine Balance)’가 활용된다. 물과 만나면 미세알 이온을 방출해 해조류와 연생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성분을 일정한 양과 속도로 공급하는 소재다.

LG전자가 바다숲 복원에 활용하는 소재 기술은 가전제품 개발 과정에서 축적됐다. LG전자는 1996년부터 유리 파우더 소재를 연구하며 항균과 탈취, 수질 개선 등 가전에 필요한 기능성 소재 기술을 확보해왔다. 이렇게 쌓은 소재 연구 역량이 약 30년 뒤 해조류 생장을 돕고 해양생태

계를 복원하는 기술로 활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LG전자는 사용 환경에 따라 미세알 성분의 방출량과 속도를 조절하는 독자 기술도 확보했다. 소재의 성분과 함량은 물론 비즈나 칩 등 형태까지 달리할 수 있어 해양과 연안 생태계에 맞춰 적용할 수 있다.

이를 바다숲 조성에 활용해 해조류 서식 환경을 개선하고 탄소흡수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능성 신소재의 연구개발과 생산 역량도 강화한다. 해양생태계 복원에서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기업간거래(B2B) 사업으로 연결해 환경적 가치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함께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 장애인에서 시니어까지...누구나 쓸 수 있는 가전으로

LG전자는 환경 분야에서도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의 사업장 직접·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은 84만 2000톤으로 2030년 목표인 87만 8000톤을 이미 밑돌았다.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도 97.3%로 2030년 목표치인 95%를 넘어섰다.

폐전자제품 회수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56개국 91개 지역에서 64만톤을 회수하면서 2006년 이후 누적 회수량은 565만톤에 달했다. 이 같은 성과로 LG전자는 올해 S&P 글로벌의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SA)에서 3년 연속 ‘톱 1%’에 선정됐다.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의 목소리를 개발 과정에 직접 반영하며 접근성도 높이고 있다. 고객 참여형 접근성 커뮤니티 ‘볼드 무브(Bold Move)’를 통해 지난해 약 200건의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한 데 이어 올해는 장애인 중심이던 참여 대상을 시니어와 비장애인까지 확대했다.

이 같은 방식은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중국 IT·테크 매체 ‘딥커지’는 최근 LG전자의 볼드 무브를 집중 조명하며 다양한 고객을 제품 체험에 직접 참여시키는 방식이 가전업계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고객 의견은 제품 개선으로 이어졌다. 저시력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LG 컴포트 키트(LG Comfort Kit)’의 정수기 실리온 커버로 냉수·정수·온수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니어를 위한 ‘LG 이지 TV’ 등으로 접근성 강화 제품도 확대하고 있다.

오준환 LG전자 HSCX 기획실장은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누구나 제품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 목소리 반영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바다숲 복원에 활용되는 신소재 ‘LG 마린 밸런스’



Step.1

GLASS + WATER



Step.2

무기질이온 생성



Step.3

미세조류·해조류 성장



Step.4

해양생태계 복원

메트로 한줄뉴스



▲FIFA 회장, 비판 여론에도 연임 도전...“바뀔 건 없다”
▲중국 마스터스 대회 3연패... ‘퍼펙트 우승’ 안 세영, 밝은 모습으로 귀국 /사진 뉴시스

▲MLB 이정후, 메츠전 4타수 1안타 2타점...김하성은 결장
▲U-18 아시아야구선수권 오늘 개막...일본·대만 “한국은 파워 좋은 팀”

▲U-19 축구대표팀, U-20 아시안컵 예선 A조 1위로 본선행
▲박윤정호, U-20 여자월드컵 첫판서 강호 프랑스와 1-1 무승부